

- 교황 바오로 6세의 UN에서 했던 연설에 따라 국제적 수준에서 부유한 세계에서 가난한 부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지배 구조로 인하여 대다수 가난한 이들이 빈곤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락 하지 않는 구조 안에서 항상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12. 우리의 직무는 실질적인 봉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스승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인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과 함께 사목적 자선 (인간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유하길 서약한다.

따라서,

- 우리는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노력할 것이다;
- • 우리는 통치자가 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동료들이 되고자 한다.
- 우리는 가능한 많이 인간답게 존재하기를 노력한다.
- 우리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이에 게 마음을 열 것이다.

13. 우리는 각자의 교구로 돌아가면, 이러한 결의사항들을 교구의 사제들에게 발표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서약을 돕기 위해 그들의 이해, 협력 그리고 기도들을 청할 것이다.

## 도미틸라 카타콤베 가는 방법

### 도미틸라 카타콤베 가는 방법

- ☑ 테르미니역(Termini station)에서 714번 버스를 타고 Piazza Navigatori(나비가또리 광장)에서 내려 길을 건너서 300미터 직진하시면 도미틸라 카타콤베에 도착합니다.
- ☑ Piazza Venezia (베네치아 광장) 또는 Piramide (피라미데역)에서 30번 버스를 타고 Piazza Navigatori (나비가또리 광장)에서 내려 길을 건너서 300미터 직진하시면 도미틸라 카타콤베에 도착합니다.



### 관람 시간

☺ 매일 오전 9.00 부터 12.00, 오후 14:00 부터 17:00. 매주 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 00 39 06 511 0342 - E-mail: info@domitilla.info

2009년 부터 도미틸라 카타콤베는 말씀의 선교 수도회(SVD)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미틸라 카타콤베 서약 50주년



교황 바오로 6세는 1965년 9월에 도미틸라 카타콤베를 방문하셨고 1965년 11월 16일에 카타콤베 서약에 주교들과 함께 서명하셨습니다.

1965년 11월 16일 15개국에서 온, 40명의 주교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성스러운 장소인 도미틸라 카타콤베에서 공의회의 정신과 현신을 담은 카타콤베 서약을 하였다. 이 서약 미사에 앞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카타콤베에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곳은 겸손과 깊은 신앙으로 박해를 이겨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강론하였다.

## 카타콤베 서약

주교들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준하여, 복음적 가난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재조명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 각 주교들은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결정과 동기를 부여 받아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는 생각과 행위를 피하도록 다짐하고 주교단은 겸손으로 하나되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결정과 본분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명한다.

1. 의식주(衣食住)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평신도와 같이 평범한 방식에 의해 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2. 우리는 부와 특별히 고가의 재료와 화려한 색깔의 옷, 그리고 값비싼 것으로 외모를 치장하기를 지양하고 복음적 삶을 지향한다.

3. 우리는 개인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것이 교구의 명이나 사회 단체로 명의 한다.

4. 우리는 자신들의 사도적 역할을 바로 알고 있는 유능한 평신도에게 교구의 재정과 자재 관리를 맡길 것이며,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사제와 사도가 될 것이다.

5. 우리는 장황하고 권위적인 칭호나 고위 성직자로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것을 선호한다.

6. 우리는 사회적 관계에서, 특권, 우선 순위, 심지어 부자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식사 제공과 식사 초대, 개인을 위한 미사) 보여질 수도 있는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7. 우리는 보상이나 기부금 요청 그리고 더 많은 이유들로 다른 사람들의 허영을 조장하거나 아첨하는 것을 피할 것이며, 거룩한 전례 안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8.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가난한 교구와 사도적 단체에게 도움을 주며,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우리의 시간, 생각, 마음, 방법 등을 제공

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은 평신도들과, 수녀들과 수사들, 부제들 그리고 사제들을 지원할 것이다.

9. 우리는 정의와 자선 그리고 상호 관계의 요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선행”의 활동들이 관련 공공 기관들의 겸손한 봉사와 같이, 모든 사람을 고려한 자선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복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10. 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결정들이 정의와 평화 그리고 모든 개인과 사람들을 위한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법률의 이행과 구조 그리고 공공 복지 제정이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 구조의 비상 사태, 인간의 자녀와 하느님의 자녀로써의 가치를 지키도록 할 것이다.

11. 우리 주교들의 협력이 복음적 충만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2/3에 달하는 대다수의 물질적, 문화적, 윤리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가장 큰 복음적 성취, 즉 공동체 실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우리의 능력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교구의 긴박한 프로젝트를 함께 나눈다.

